



몽 골 몽 골 과

크 라 잉 넷 의

디 지 털

장 편 영 화

< 이 소 롱 을 찾 아 랫 ! >



R o c k ,

L u c k ,

L o c k

메 트 로 폴 리 스

서 울 의

이 상 한

풍 경

취재 이영재 기자 / 사진 성은경 기자

새로움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지칠 줄 모르는 탐식의 노정, 조바심으로 불러들이고자 하는 이 욕망의 정체는 분명 탐욕스러운 새로움에의 갈망에 있을 것이다. 먼저 이것은 대부분 예감의 형태로 찾아오는데 그것은 이것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소개할 영화는 바로 그러한 예감으로 충만하다. 이름하여 <이소룡을 찾아랏!>. 뜬금없이 왜 이소룡? 당장 그렇게 물어오실 당신들에게 살짝 힌트를 던지자면 이 영화에 이소룡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조선 핑크’ 크라이밍 넷이 위풍당당(?) 진군해온다. 아니 진군이라고 하니 말이 참 거창하다. 영화 속에서 그들은 평소처럼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고 흥대 앞을 어슬렁거리며 다닌다. 그리고 그 중 한 친구가 불현듯 매서운 눈의 탐정을 자처하며 이소룡을 찾아 낚설고 기이한 탐험에 오른다.

이소룡을 찾아랏?! 이소룡은 없다

지난 6월 9일 서울의 한 이벤트홀에서는 독특한 영화상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며칠 전부터 서울 시내 여기 저기에는 일부러 촌스럽게 잔뜩 멋을 낸 전단들이 나붙기 시작했다. ‘쇼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일거양득, 일석이조라는 귀가 솔깃해지면서 동시에 구매욕을 자극하는 멋진 카피다. 여기는 크라이밍 넷의 3집 앨범 「하수연가」 기념 콘서트와 더불어 그들의 첫 번째 영화 출연작이자 프로젝트 그룹 몽골몽골의 첫 번째 디지털 장편영화 <이소룡을 찾아랏!>의 첫 공개 시사장. 이층 계단까지 발디딜 틈 없이 들어선 사람들의 열기가 후끈 공연장을 데운다. 아마도 그들 대부분이 뭔가 새로운 걸 찾기 위해, 그 두근거리는 열정의 순간을 함께 하기 위해 토요일 저녁을 고스란히 여기에 투자하고자 온 사람들일 것이다. 재미있게 놀아보자! 진지함 따위는 개나 주어버리고 한 몸이 되어 신나게 즐길 시간이다. 불이 꺼지고 스크린이 열리고 두둥두둥 맥박 같은 음악이 뿜어나온다. 미확인 비행물체의 도착.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크라이밍 넷의 한 멤버가 불쑥 이렇게 묻는다. “What happened?” 대체 뭘 일이냐고? 마치 이젠 이 자리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든 우리 보고 하는 말 같다. 이게 무슨 곳판이지? 이 순간부터 영화는 자기만의 속도로 새로운 매핑을 시작한다. 서울, 글로벌 시대의 메트로폴리스를 또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도착하며 낯설어진 도시의 여기저기를.

<이소룡을 찾아랏!>의 이야기는 간단하다. 서울에서 크라이밍 넷이라는 이름으로 음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네 명의 젊은이들이 있다. 언제나처럼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연주가 끝나면 사람들이 풀어내는 얘기 보따리를 들고 아침을 맞이하는 나날들을 보내는 와중, 어느날 러브호텔에 투숙한 두 남녀가 콘돔을 까던 중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첫 번째 사건은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곧이어 골목길 여학생들만 노린다는 그



유명한 아담이 육교 위의 시체로 발견되고, 드럭의 소녀 팬도 죽은 시체로 발견된다. 뉴스 속보가 연이어지는 가운데 범인은 반드시 증거를 남긴다는 어느 명탐정의 말처럼 이 모든 장소에서 발견되는 증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으니 어김없이 이소룡의 흔적이 남는다는 것이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서울이 감염당한다. 이소룡 바이러스다! 베이시스트 경록은 크라이닝 넷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일련의 사건들에 강력한 의문을 품고 홀로 조사를 시작한다. 먼저 가까운 데부터. 첫 번째 인도로 배낭여행을 다녀온 아저씨를 찾아간다. 인도에서 침묵을 지키는 법을 배운 아저씨는 별말이 없다. 하지만 꽤 중요한 정보를 얻었으니 구경꾼들의 무리 중에 체육관 아저씨가 있었다는 사실. 체육관 아저씨는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만 할 뿐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경록. 이번에는 정기적으로 그들을 방문하는 사람을 의심해보기로 한다. 짜장면 배달원 아저씨. 그런데 이 아저씨, 이소룡 사진을 보여주자 한다는 생각이 이소룡 반점을 떠올릴 뿐이다. 동네에서 제일 말 많은 미장원 아저씨는 뭘 좀 알고 있을까? 안전제일이 신조인 미장원 아저씨는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충고를 남길 뿐이다. 그렇다면 경제에 빠삭한 경비원 아저씨는? 된통 호되게 당하는 경록. 한편 경록이 탐정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친구들

은 낙원 상가 악기점에서 대한민국 서울,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당당히 하모니카 하나를 훔쳐 나오는 중이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경록의 탐정 생활은 계속되고, 그 와중에 수많은 낯선 이들이 스쳐간다. 이상한 말을 하는 해물탕 가게 아줌마, 다리 잘린 여자, 태극기 아저씨,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울을 여행하는 한 소년. 여기까지 들으면 그저 우스꽝스러운 농담 정도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이 농담 같은 이야기야말로 이 영화의 새로운 감각을 보여주는 단면 중의 하나이다. 결국 사건은 참으로 시시껄렁하게 종결되니, 범인은 태극기 장수로 위장한 자폐증 환자였다는 사실을 경록의 내레이션으로 듣는 게 끝이다. 사건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사실 이건 거의 의도적인 사족 같다). 마치 탐정을 자처한 경록에게 거리의 곳곳에서 마주치는 이들과의 만남이 중요했듯 영화 또한 그 과정이 중요할 뿐이다.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따라 다니는 공연장들, 그곳에서 유감없이 발휘되는 크라이닝 넷이라는 펑크 록그룹의 진짜배기 매력,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를 쫓아가며 만나는 이국의 말을 쓰는 수많은 낯선 이들. 그러니까 이것은 얼치기 탐정을 앞세운 일종의 탐방기와 같은 것이다. 그 속에서 새로운 렌즈에 포착된 서울이라는 익숙한 공간은 낯

선 어떤 것으로 변해간다.

우리만의 영화

아마도 이 영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몽골 몽골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컬처 로드'를 여행하는 문화 유목민'이라고 말하면 설명이 될까? 극작과 연출을 맡고 있는 강론 감독을 위시하여 피아니스트, 마임이스트, 무용가, 사진 작가, 배우들 등 다종다양한 마이너리티 아티스트들이 모여 만들어진 그룹. 작품에 따라 헤쳐 모여 하는 이 그룹은 매우 자유로운 집단이고 그래서 종종 생각보다 아주 반대해져버리는 집단이다. 이 모임을 처음 구상한 것은 강론 감독.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해외 로케이션의 스포츠, 관광 다큐멘터리 촬영 스텝, 오페라단의 공연제작부, 몇 편의 연극에서 극작과 조연출 등을 경험한 그 자신이 유목적 삶에 익숙한 사람이다. 1998년 한국에 들어온 그가 영화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은 박광수 감독의 <이재수의 난> 연출부를 통해서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지금의 몽골몽골을 이루는 주축이 되었다.

“1996년에 파리에서 마임 하는 이태건 씨와 만나서 뭔가 다른 걸 해보기 위해 하나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를 했다. 그 친구는 마르셀 마르소한테 마임을 배운 사람인데, 나는 비주얼과 사운드로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리고 1998년에 <이재수의 난> 연출부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서로 이심전심의 눈 사인이 오고갔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첫 작품은 1999년 대학로 문화축제의 오프닝 공연이었던 「상상력의 반란」. 이어 마임이스트 이태건 씨와 무용가 김선아, 프랑스의 재즈 피아니스트 프랑소와즈 삐졸과 함께 한 「Ropedancing」과 「My Wonderful Left Hook」을 장르 간의 줄타기 실험처럼 완성하였다. 그 중 「마이 워더풀 레프트 후크」은 호주의 애텔라이드 페스티벌에 초청되기도 하였다. 호주는 이 팀 중 아무도 본

적 없는 캥거루가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선택되었다. 우스개 소리처럼 “우리 짐을 참 빨리 싸요”라고 말하는 감독의 말처럼 이들은 아주 가볍고, 빠르며 결코 안주하려 하지 않는 그룹이다. 그들은 떠돌이 유목민, 노매드를 지향한다. 몽골몽골이라는 이름 또한 이들이 지향하는 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람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내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예 동양인이니까 몽골몽골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또 하나는 몽골몽골이라고 할 때의 웬지 유목민 같은 느낌이 좋았다. 우리는 정치나 경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라는 것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킬쥬릴 노매드라는 게 우리의 지침이 아닐까. 문화 유목민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우리가 다시 실크로드라는 걸 만들어보자. 예전에 상인들이 다니면서 처음 만났던 것에 대해 신기함을 느꼈듯, 우리도 새로운 사람을, 장르를, 언어를 만난다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

이들의 첫 번째 영화 작업 <이소룡을 찾아랏!>은 크라이닝 넷과 몽골몽골 팀 간의 일종의 잼 세션처럼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사이에 흥대 앞 인디 씬을 세상에 알린 드럭의 이석문 대표가 이들을 하나로 엮어주었다. 이석문 씨를 처음 만난 것은 호주에서 돌아온 직후, 왕성한 창작력을 자랑하는 몽골몽골 팀이 그곳에서 만난 흑인 할아버지 탭댄서와 새로운 공연을 기획하고 있을 때였다.

“우연히 술자리에서 이석문 씨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먼저 제안을 해왔다. 그년부터 우리끼리 서울에 관한 삼부작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각각 제목도 다 정해져 있는 상태였다. <이소룡을 찾아랏!>, <물 속을 나는 미니버스>, <울고 있는 네 모습이 너무도 이뻐>라고. 몽골몽골의 공연도 항상 새로운 아티스트와 스텝을 만나는 장이었는데 문제는 어떤 아티스트를 만나는가였다. 그 때 크라이닝 넷을 만났는데, 서로 계약도 안하고,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오케이! 하고 시작했

다. 우리는 뭔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시스템에 불만이 있거나 관습에 저항하고 싶거나 그러저러한 이유로 모인 사람들의 팀이다. 그래서 참 잘들 어울린다.”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새로운 작전을 짜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몽골몽골이라면, 이렇게 시작된 영화는 크라이닝 넷의 콘서트를 찍으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였다. 연대 노천극장에서 있었던 자유 공연을 시작으로, 두 달간 크라이닝 넷의 모든 공연을 쫓아다니며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영화를 찍기 전에 정해진 것은 기본 시놉 정도, 시나리오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수정되었다. 현장은 마치 즉흥연주장 같았다.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 매일 밤 술을 마시고(진짜다. 잠깐 노트들의 말을 들어보자. “찍을 때도 그렇고 찍기 전 거의 한 달전부터 술을 되게 많이 마셨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각자 개인적으로, 너 오늘 나랑 술먹자, 그러면서 한 명씩 따로따로도 만나고, 얹혀놓은 다음에 막 얼굴도 만져보고...”(이상면)) 그러면서 진짜 친구들이 되어버렸다.

뒤돌이 사수!

그럼 첫 번째 영화 출연을 결심한 자칭 영화광들 크라이닝 넷들의 생각은 어떨까? “처음에는 별 부담이 없었어요. 우리 연주하는 장면이랑 다큐멘터리 하는 식으로 찍는다고 했거든요”(한경록). 하지만 연간 2백회 공연을 하는 이들도 영화에 있어서는 초보배우일 뿐이다. 공연과 같이 진행되는 영화 촬영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영화 메커니즘을 익혀가야 하고, 카메라 앞에서 잘 노는 법도 터득해야 한다. “헬기 탈출 씬이나 63빌딩 폭발 씬을 찍을 줄 알았는데(웃음). 처음에는 우리 본래 영화 많이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멋있게 나온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만들려 했더니 진짜 어색하고 못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냥 너네 노는대로 해봐라 그래서 카메라를 의식 안하고 찍을 때 더 진솔한 게 담아져요.”(이상혁). 특히 밤 공연을 피해 새벽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주로 영화를 찍는데, 야행성인 이들에게 시간 엄수는 크나큰 난제였다. 주인공을 맡아 어깨가 무거운 한경록 씨는 아예 다음날 촬영이 있는 날은 술을 진탕 마시고, 촬영장 근처에서 노숙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다가 하루는 싸움이 붙어서 몽키스패너에 맞아 뺨통이 생기기도 했다.

“어느날 이소룡 역을 연기해야 하는 날이 있어서 또 술을 마시며 밤을 새다 싸움이 붙었는데 몽키스패너로 머리를 맞았어요. 그러다 영화 촬영 시간이 된 거예요. 그 때 본 사람들이 그러는데 매일 이소룡 역을 하니 진짜 내가 이소룡인 줄 알고 ‘아보’ 하면서 이소룡 흉내 내다가 허벌나게 맞았대요. 영화 촬영 시간이



되서 피를 줄줄 흘리며 영화 찍으러 왔는데요 했더니 감독님이 어 그래, 병원 가자. 그래서 결국 그날 영화는 못 찍었죠.”

이 순간 강론 감독에게 강력한 인상으로 남은 한마디, 피를 철철 흘리며 병원에 간 한경록 씨, 간호사에게 왈 “우리 차나 한잔 할까요?” 이들에게 이 작업은 단지 완성된 작품으로만 기억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과정이 중요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함께 작업을 하고 술을 마시고 취했던 사람들에 관한 기억. 그래서 영화를 찍으며 이들이 결코 양보하지 않았던 것은 단 한 가지, 뒤풀이었다. 새벽에 끝나든, 아침에 끝나든, 이틀을 꼬박 새든, 돈이 없어 그곳이 거리가 됐든 어디든 뒤풀이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법. 이틀밤을 꼬박 찍고 아침에 촬영이 끝난 어떤 날은 그때부터 공연 직전까지 술을 마셔서 공연 때 모두 자버리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몸은 녹초가 됐지만 그만큼 기억에 남는 일은 많다. 연극하는 사람들, 마임하는 사람, 바이올린 주자, 무용수 등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것이 알게 모르게 그들의 음악에도 영향을 미쳤다(크라잉 넛의 3집 「하수연가」를 들어보면 그 과정을 어렵짐 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영향이란 상호적인 것. 크라잉 넛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찍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받았다. 찍는 과정이 계속해서 영화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갔다. 촬영은 늘 흥분상태로 진행되었다. “가령 상면 씨한테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갑자기 비틀즈의 어떤 실루엣을 떠올리면 딱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었다. 나는 영화를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음악가인데 그렇게 주거나 받거나 하는 작업이 아니었나 싶다. 뮤지션과 함께 영화를 만든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했다. 영화를 음악처럼 만들면 어떻게 될까? 지나고 보니까 이런 주고받는 에너지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함께 호흡하듯 찍을 수 있게 된 데에는 디지털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처음에 디

지털로 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는 프로듀서와 많이 싸웠다(웃음). 하지만 나는 홈비디오로 찍어도 할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찍다가 디지털의 매력을 알았다. 일단 눈이 밝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티스트를 잡아내는 데는 이보다 더 훌륭한 게 없었다. 조명치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기가 다 빠지는데 이걸 없으니까 스탭들이 처지도 않고. 어떻게 생생하게 담아낼 것인가를 생각할 때 디지털은 적격이었다” 그때 디지털 카메라는 정확히 이 주고받음의 ‘매개’로서 작용한 것이다.

노매드들의 원더랜드

‘단지 배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원했다’는 강론 감독의 말처럼 크라잉 넛들은 이 안에서 정말이지 생생하게 빛을 낸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은 바로 그런 점이다. 이 작업을 위해 모여든 모든 이들의 감성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것. 메이드인 서울. 약간씩의 다른 시간적 배경을 두고 태어난 이들이 자신들이 나고 자란 서울이라는 공간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모아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 서울은 공존과 혼란과 모험의 도시로 탈바꿈한다. 그 안에서 규칙을 만들거나 거기 투항할 생각은 전혀 없다. 네 멋대로 해라! 펑크 락커들의 정신이 영화 속으로 들어온다.

“처음부터 어떤 모자이크를 생각했다. <네 멋대로 해라>의 정신을 첫 번째로 생각했다면 두 번째는 <400번의 구타>다. 이 말이 붙어오하면 ‘Les quatre cent coups’ 인데 해석이 잘못되서 구타라는 표현으로 번역됐지만 사실은 사춘기 아이가 정신없이 한 번에 사백 번의 일을 하려는 상태, 그 정신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영화 제목을 하나로 모으는 영화가 되기를 바랐다.”

아마도 이 순간 이소룡이라는 존재는 이 도시를 반사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도시의 난무하는 이미지들, 부유하는 키치, 시간의 혼재. 그것은 영화 안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었다. 초등학교 때 이소룡에게 흠뻑 빠져 무도장을 들락거리다가 성룡과 홍금보에게 매혹되어 북경 오페라의 정수를 맛보고자 당시의 중공으로 보내달라고 부모를 조르던 강론 감독의 기억이 있는가 하면, 주성치의 <신정무문>을 보고 이소룡을 다시 보게 됐다는 너트들의 기억이 있다. 죽은 이소룡의 망령이 샌프란시스코도, 홍콩도 아닌 서울에 불시착한다. 그러면서 기억의 문제가 불려오고 동시에 1초에 24프레임이라는 기억장치로서의 영화 매체에 대한 탐구가 함께 수행된다. 아마도 이것은 장르에서 장르로의 전이를 꿈꾸며,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유목하려는 형상과 같은 것일 게다.





경록이 만나는 사람 중에는 한쪽 다리가 잘린 여자가 있다. 여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예쁜 다리를 험오하는 평등주의자 남자를 사랑하게 된 여자는 자신의 다리를 자른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다른 여자가 생기고, 버림받은 여자는 지붕 위에서 꼼짝 못한 채 남자를 기다린다. 정지화면의 연속 컷으로 이루어진 이 장면은 독특한 미감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은 나름의 장점이 있는 반면, 너무 심도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뭔가 사람 손때가 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무식하게 간 거다. 전부터 함께 작업을 해서 굉장하게 잘 통하는 사진 찍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카메라를 잡고 나는 어깨를 누르며 이쪽이다, 저쪽이다 해가면서 2백 몇 컷을 찍었다. 그리고 닳더니 이 친구가 단내가 다 나는데(웃음), 그걸 일일이 현상소에 안 맡기고 뽑아서 손으로 편집했다. 뭔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직업의 다양성, 인물의 다양성, 내러티브의 다양성과 더불어 매체 자체의 다양성까지.”

우리에게 뉴웨이브가 온 것일까?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이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고 싶어하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근사한 고급 빌딩에 너트들이 하나둘 몰래 들어와 화장실로 향한다. 화장실에서 설탕물을

끓여 머리카락을 뿔뿔이 올린 너트들, 만족한 웃음을 씨익 띄우며 다시 몰래 화장실을 빠져 나오는데, 잠깐, 경비원 아저씨가 손짓을 한다. 아주 불편하게 앉아! 아저씨의 일장연설이 시작된다. “여기는 국가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덜이 사용하는 건물이다 이거야. 그런데 너네 같은 핑크족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빵꾸나는 거라구. 슬픈 일이지. 도대체 느네들한테 생산성이라는 게 뭐냐?” 너트 중의 한 명이 슬그머니 팔을 올리며 이렇게 말한다. “아저씨, 화장실 좀 갖다 오면 안돼요?” 그 순간 이 영화 안에 숨겨진 분노의 대상들, 기성세대와 자본주의의 온갖 권위들은 자질구레하고 하찮고 시시해져버린다. 분노는 희화화된 조롱으로 탈바꿈한다. 새로움이란 결국 권위의 도전이 얼마나 맹렬한가에서 시작하는 것 아닌가?

몽골몽골의 두 번째 공연이자 마찬가지로 강론 감독이 연출과 극작을 담당한 「마이 워터풀 레프트 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인(강론 감독도 왼손잡이다) 소년이 있다. 어느날 소년의 집에 불행이 닥친다. 신문기자인 아버지가 기사를 잘못 써서 어디론가 끌려가버린 것. 한편 소년의 왼손은 자랄수록 점점 커져가고, 소년은 복서가 되고 팝스타를 꿈꾸던 여동생은 라운드걸로 전략한다. 오늘 그는 조작된 경기에 출전해야

한다. 라운드걸의 신호와 함께 오른손을 내밀며 팡, 쓰러지는 게 그의 역할이다.

영화를 음악처럼 만든 강론 감독의 꿈 중 하나는 공연을 다큐멘터리처럼 만드는 것이다. 그는 「마이 워터풀 레프트 후」의 마지막 공연을 좌파들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해보고 싶다고 고백한다. “「마이 워터풀 레프트 후」을 쓸 때 체 게바라가 마지막 길을 떠나는 장소와 죽은 장소에서 공연을 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쿠바에서 한 번, 볼리비아에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사실은 난니 모레미 앞에서 공연을 해볼 생각을 했는데, 칸느에서 상을 받는 바람에 재미가 없어졌다(웃음).”

그들의 많고 많은 계획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파이버 핸드레드 스튜디오’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것은 그들이 작업을 하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남기는 것이다. “유명하건, 유명하지 않건, 재능이 있건 없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얼굴들을 남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모두의 얼굴이 우리가 살았던 시대를 그대로 비춰주지 않을까?” 권위를 하찮게 조롱하고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그 순간 진정한 새로움이 우리 앞에 당도한다. 어쩌면 ‘우리엔겐 내일은 없다’라고 크라이넛이 노래부르는 순간, 그래서 짜잔 도전장을 내미는 순간 진짜 내일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PS. 드럭 초창기 시절, 스케이트보드를 처음 끌고 다닐 무렵의 크라이넛들은 한 편의 영화를 찍으려고 했다. 홍대의 치안을 지키자는 의미로 보드 수사대의 활약상을 그리고자 했던 이것은 심지어 시리즈물이었다. 결국 63빌딩 폭파 장면에 부딪쳐 제작비 문제로 접어야 했지만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다. <이소룡을 찾아라!>이 부천영화제에서 공개된 이후 출연섭외가 쇄도할 것이라고 이구동성 말하는 그들은 현재 류승완 감독의 <피도 눈물도 없이>에 카메오 출연이 결정된 상태이다.

KINDO